

삼계탕·냉면값 줄줄이 상승… 외식비 부담 커진다

원재료·인건비·임대료 등 가격 상승 영향 한몫

폭염에 농축수산물 수급 불안…“하반기 오름세”

전남광주지역 외식물가의 오름세가 하반기에도 이어지고 있다.

여름철 대표 외식 메뉴인 삼계탕과 냉면 가격이 나란히 상승하면서 소비자들의 외식비 부담도 커지고 있다.

25일 한국소비자원 가격정보종합포털

‘참가격’에 따르면 지난 7월 전남광주지역 삼계탕 평균 가격은 1만7078원으로 집계됐다. 광주는 1만7600원, 전남은 1만6556원이다.

전월인 6월 평균 1만6878원과 비교하면 1.1% 상승했다. 지난해 7월 평균 가격 1만

6511원과 비교해서는 3.5% 올랐다.

삼계탕 가격 상승에는 여름철 보양식 수요 증가와 함께 닭고기 등 식재료 비용 상승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기에 사료비와 물류비 등 생산·유통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 부담도 가격 상승 요인으로 꼽힌다.

삼계탕에 들어가는 인삼 가격 역시 큰 폭으로 올랐다. 지난 21일 기준 수삼 1채(12~14뿌리) 평균 가격은 3만8750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2만4800원보다 56% 상

승했다. 공급 감소와 생산 기반 약화 등이 가격 상승에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된다.

냉면 가격도 상승세다. 전남광주지역 냉면 평균 가격은 지난해 7월 9872원(광주 1만300원·전남 9444원)에서 올해 7월 1만133원(광주 1만600원·전남 9667원)으로 2.7% 상승했다.

냉면 역시 여름철 수요가 집중되는 가운데 육수용 식재료 가격과 인건비, 임대료, 가스비 등 각종 운영비 상승이 가격에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외식업체의 비용 부담은 여전히 높은 상황이다. 원재료비뿐 아니라 인건비와 임대료, 물류비 등 고정비 성격의 비용까지 누적되면서 외식업체들이 가격 인상 압박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폭염 등 기상 여건에 따른 농축수산물 가격 변동까지 더해지면서 하반기 외식물가 역시 안정세를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여름철 대표 메뉴 가격이 잇따라 오르면서 소비자들의 체감 외식비 부담도 커지고

있다. 급격한 가격 상승은 아니더라도 누적된 인상이 이어지면서 서민들의 외식 지출을 압박하는 모습이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외식물가가 단기간에 급등하는 모습은 아니지만 식재료비와 인건비, 임대료 등 비용 상승이 누적되면서 가격이 조금씩 오르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며 “하반기에도 비용 부담이 크게 완화되지 않는다면 외식물가는 당분간 완만한 상승세를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윤용성 기자 yo1404@gwangnam.co.kr

동종 재창업 불인정 기간 단축

3년→1년… 재도전 기회 확대

폐업한 개인사업자가 같은 업종으로 다시 창업할 수 있는 길이 넓어진다.

동종 업종으로 재창업할 경우 정부 창업지원사업에서 창업기업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기간이 기존 3년에서 1년으로 단축된다.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2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현행 법령은 창업지원사업의 중복수혜를 막기 위해 개인사업자가 폐업한 뒤 같은 업종으로 다시 개인 또는 법인사업자를 설립하는 경우 일정 기간 창업기업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기존에는 폐업 후 3년이 지나야 정부의 각종 창업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인공지능(AI)과 기술 융복합 등 창업 환경이 빠르게 변하면서 3년이라는 기간이 재창업을 지나치게 늦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특히 한 차례 사업을 경험한 창업자가 실패 원인을 보완해 다시 사업에 도전할 경우 기존 경험과 기술, 거래처 등을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재창업 기간을 줄여야 한다는 요구가 있었다.

중기부는 실제 동종 업종으로 재창업하는 데 필요한 준비기간이 약 11개월인 점을 고려해 창업 불인정 기간을 1년으로 단축하기로 했다.

이번 개정으로 폐업 이후 1년이 지나면 같은 업종으로 다시 사업을 시작하더라도 창업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개정 시행령은 오는 9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윤용성 기자 yo1404@

gwangnam.co.kr



롯데백화점 광주점, 2026년 F/W 신상품 선봬 롯데백화점 광주점이 본격적인 가을·겨울 시즌을 앞두고 2026년 F/W 신상품을 선보인다. 여름 끝자락의 더위가 여전히 기승인 가운데 백화점 매장은 패션의류 브랜드 별로 60~90% 정도를 F/W 신상품으로 교체했다. 올해 F/W 패션 트렌드는 클래식함을 기본으로 다양한 레이어링을 통해 본인만의 스타일을 추구하는 패션이 유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배달앱 결제액 3.28조…7월 역대 최대 규모

폭염·휴가철 맞물려 배달 수요 증가…전년보다 18%↑

배달 플랫폼 시장이 다시 한 번 역대 최대 결제 규모를 기록했다.

고물가와 외식비 부담에도 배달앱을 통한 음식 주문 수요가 꾸준히 늘면서 관련 시장의 성장세가 이어지는 모습이다.

25일 와이즈앱·리테일에 따르면 지난 7월 배달의민족·쿠팡이츠·요기요·뽕겨요 등 배달 플랫폼 4사의 합산 결제추정 금액은 3조2787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달 2조7889억원보다 18% 증가한 규모다.

앞서 역대 최대였던 올해 5월 3조2004억원보다도 783억원 늘어나며 불과 두 달 만에 최고 기록을 다시 썼다.

배달 플랫폼 4사의 7월 결제추정금액은 2023년 7월 2조4393억원에서 2024년 2조5379억원, 2025년 2조7889억원으로 꾸준히 증가한 데 이어 올해 3조원을 넘어섰다.

실제 배달앱을 이용하는 소비자 규모도 상당했다.

7월 배달 플랫폼 4사의 중복 이용자를

제한한 총 결제자 수는 2441만명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1인당 평균 결제 횟수는 5.8회, 평균 결제금액은 13만4747원이었다. 한 차례 주문에 지출한 평균 금액은 2만3203원으로 조사됐다.

앱 이용자 규모에서는 배달의민족이 독보적이었다.

7월 배달앱 월간 사용자 수는 배달의민족이 2302만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쿠팡이츠가 1313만명으로 뒤를 이었다. 요기요와 뽕겨요는 각각 355만명, 249만명으로 집계됐다.

윤용성 기자 yo1404@gwangnam.co.kr

광주신세계, AI로 그리는 ‘더 그레이트 광주’

개점 31주년 기념…미래 공간 주제 AI 영상 공모전

㈜광주신세계가 인공지능(AI)을 활용해 미래의 광주신세계를 그려보는 영상 공모전을 개최한다.

광주신세계는 올해 개점 31주년을 맞아 ‘AI로 상상하는 미래의 광주신세계’를 주제로 AI 영상 공모전을 진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광주신세계가 추진하는 새로운 랜드마크 ‘더 그레이트 광주’의 미래 모습을 지역민과 함께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가자는 서비스·시설·공간 등 3개 분야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 AI를 활용한 30초~1분 내외의 숏폼 영상을 제작하면 된다.

만 14세 이상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공모 기간은 오는 9월 27일까지다. 응모작은 네이버 폼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공모 영상을 본인의 SNS 계정에 공개 게시물로 올리고 ‘더그레이트광주’와 ‘광주신세계’를 필수 해시태그로 작성해야 한다.

총상금은 500만원이다. 1등 1팀에

300만원, 2등 1팀에 100만원, 3등 2팀에 각각 50만원이 주어진다.

공모전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광주신세계 홈페이지와 공식 SNS 계정에서 확인할 수 있다.

광주신세계가 추진하고 있는 ‘더 그레이트 광주’는 약 25만㎡ 규모의 복합시설로 조성될 예정이다. 특급호텔을 비롯해 공연장과 업무시설, 주거·의료·교육시설 등이 들어서며 오는 2029년 개점을 목표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이번 공모전은 단순히 AI 영상을 제작하는 것을 넘어 지역민이 직접 미래의 광주신세계 모습을 제안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광주신세계 이동훈 대표이사는 “이번 공모전을 통해 지역민들이 원하는 시설을 미리 만나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더 그레이트 광주’가 더 나은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지역민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윤용성 기자 yo1404@gwangnam.co.kr



아카데미홀 대관

📍 장소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무등로 254(광남일보 사옥 1층)

📺 스크린 및 음향 최고시설 완비

🏛️ 교육연수, 연회, 세미나 등

👥 시설 사용인원(최대) : 150명

💰 대관료 : 오전 10만원/시간 · 오후 20만원/시간
※ 오전·오후 이용시간은 별도 문의

